

예수 부활 대축일

기도서 P. 278

제1독서(사 도 10, 34a. 37-43)
제2독서(골 로 3, 1-4)
복 음(요 한 20, 1-9)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구 전주교구
편집인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④ 2935

□부활절 메시지

이웃을 교회로 인도합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주간을 거룩하게 지내셨습니까? 주께서 마련하신 이 기쁜날에, 여러분에게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나는 그동안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부활의 오묘한 뜻을 힘써 풀이해 왔습니다. 제작년(79년) 부활절에는 <부활과 교회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요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하였고, 교회는 이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현 되도록 복음 선포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부활절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오늘의 사회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소 체험할 이 만큼, 이 시대의 고통에 동참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금년 부활절에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교회(성당)안으로 인도하자>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합시다!

교회는 그 본질상으로 복음 선포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신교 교령 2번 참조) 이 복음선포 사명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빼놓고, 모든 겹에 있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성을 지니신 예수께서 (요한 8, 46; 로마 8, 3; 히브 4, 15 참조)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곧 죽을 운명에 있는 우리도, 죄를 용서 받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열렸음을 의미 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와 똑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시켜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그분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그분과 더불어 부활하여,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요한 3, 19; 고린후 5, 19-21; 요한 20, 23 참조) 이러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께서는 당신 친히 계시하신 영원한 삶 (하느님 나라)를 세세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까지 베풀어 주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하느님의 백성)를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랑한

다면, 우리는 모름지기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선 세례를 받고 성체를 모시도록 주선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 3, 5)고 말씀 하였고, 또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요한 6, 53)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위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며 또한 주님의 성체를 모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생기기 이전 사람들과 또 아직도 전혀 복음 선포를 받지 않은 사람들 처럼,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으며 양심의 명령으로 알려진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힘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헌장 16번), 그러나 이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고 구원의 보편적 방편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이상,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즉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교회 헌장 14번 참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적으로 현존 하시는 장소는 바로 교회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에 들어와야 하며, 거기서 들려지는 하느님의 말씀(그리스도)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주교단은 “이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진지 200주년이되는 1984년을 내다보면서” 금년을 <이웃 전교의 해>로 설정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 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을 것이다”(마르 16, 16)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부활절에 각 본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 합니다. “저 발들을 보십시오. 목식이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습니다.”(요한 4, 35). 한층 더 분발해서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더 많은 영세자를 내도록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 이번 부활절에 영세한 교우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길 기원합니다.

1981년 부활절에
주교 김 재 덕

김재덕 주교님 전주 교구장 사임!

김재덕(아우구스띠노) 주교님이 전주 교구장직을 사임 하셨다.

건강 때문에 좀더 젊고 참신한 후배에게 중책을 넘기시겠다는 강한 표현이셨지만 그실, 봉사해야 할 신성한 직무를 망각하고 권력에 연연해서 영구 독재를 하려드는 오늘의 세태에 더욱 큰 경중과 수범을 보이신게 아닐까? 착잡한 중에도 주교님의 높으신 뜻에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린다.

뜻밖의 발표에 무거운 마음들을 가다듬으며 1981년 4월 10일자 「교구장 사표」에 관한 발표공문 전문을 그대로 실어드린다. (교구공문 81-21호)

교구(敎區)를 위해 보다 많은 기도를 요청하건서...

교구내 및 전국의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1. 본 주교는 건강상 이유로, 전주 교구장직에 대한 사표를 1980. 4. 1일자로 로마 교황성청에 제출하였습니다

2. 성청에서는 1980. 9. 24일자로 위 본 주교의 사표를 -새로 교구장이 임명될 때까지 본 주교가 교구장직을 그대로 계속할 것을 조건으로 수리하였으며, 동시에 새 교구장 선정작업을 비공개리에 착수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교구장 선정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유감스럽게도 사실의 일부가 누설되었을뿐 아니라, 근거없는 낭설까지 유포되어, 부득히 그 작업을 일단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그후 본 주교와 성청당국은 이런 공백상태를 더 오래 계속할 수는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위 제1항과 제2항의 사실(사표제출과 사표수리)을 공식으로 발표할 것을 1981. 3. 24일 결정하였습니다.

5. 이하하여 오늘 1981. 4. 10일 12시를 기하여 로마와 전주에서 동시에 이를 공식으로 발표합니다.

6. 위 공식발표와 동시에 :

가. 전주교구 주교좌는 공석이 되고(교법 430조 1항)
나. 교구의 통할권은 교구 참사회에 귀속되며(교법 431조 1항),

다. 동 교구 참사회가 8일 이내에 선출하는 참사회 대표(Vicarius Capitularis)가 새 교구장이 임명될 때까지 임시 교구장직을 대행하게 됩니다(교법 432조 1항, 443조 2항)

1981. 4. 10

교구장 김 재 덕 주교

*사제 인사이드(4월 10일자)

성명	가 시 는 곳	계시던 곳
김반석 신부	금마(신설)주임	교구 대기
성민호 신부	신태인 주임	공군(전역)
김병운 신부	캐나다 교포 사목	신태인 주임
양재철 신부	해외연수, 노송동 대기	공군(전역)
나중렬 신부	전국 메스클 지도	노송동 보좌
박인호 신부	중고 연합회 간사(겸)	

- 인수 인계 : 4월 20일<월> 오전 10시(교구청)
- 부임 일시 : 4월 23일<목>까지

교구장 직무 대행

1981년 4월 10일 낮 12시 정자,

로마 교황청과 국내 공식 발표에 의하여 김재덕 주교님께서 교구장 직분을 사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교구 참사회에서는 주교님의 공식발표와 동시에 공식이 된 교구장 직분을 대행하기 위하여 교회법 제432조에 따라 교구장 직무를 임시 대행할 신부를 선출, 새 교구장이 취임 할 때까지 교구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올 제위 神父님!

금주교님께서 사의를 표하심은 물론 건강상 이유가 크겠지만 오늘에 맞는 사목을 할 수 있도록 후배 신부님들에게 그 직분을 물려주시기 위한 뜻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교님의 뜻을 따라 특별히 미사중에 은 성교회와 교황과 주교님들을 위한 기도문을 바칠때 새 주교님이 선임될 때까지 특별한 지향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교구내 修女님!

수녀님들의 소임은 다른 어느때 보다도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선교활동 중에도 성무일도를 바칠때마다 새 주교님이 빨리 선임되도록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간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교우 兄弟 여러분!

김 주교님의 교구장 사표수리에 대한 소식은 다른 누구보다도 교우들의 충격이 크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구를 이끌어 갈 훌륭한 주교님을 선정해 주시도록 성모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께 간구하시도록 로사리오 기도를 열심히 바쳐야 하겠습니다.

김 주교님은 행정상 교구장 직분을 완전히 포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교님의 직분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주교님께서 새 초소가 마련될 때까지 교구청에 계시면서 전례행사에 계속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구 발전을 위하여 용단을 내리신 김 주교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주교님 건강을 위하여 교우들의 간단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잠시동안이지만 무거운 직책을 맡게된 부족한 본인의 뜻이 성직자, 수도자, 모든 교우들의 뜻과 일치하기를 빕니다.

1981년 4월 15일

교구장 직무대행 김 환 철 신부

숲 정 이 산책



진리는 죽지 않는다

- 인수 인계 : 4월 20일<월> 오전 10시(교구청)
- 부임 일시 : 4월 23일<목>까지

◀ Ecclesia ▶

『금마 본당 신설』

역사적으로 마한과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백제의 도읍지 '금마'에 하느님 영광을 드높일 본당이 신설되었다. 이 곳은 일찌기 1868년경에 문권중(야고버)가 박해로 부친이 별세하자, 연산 논골에서 감나무골(갯걸공소)로 이사온 후, 10년 후에는 교우 4세대가 모여 공소 형태를 갖추어 도화정 공소(삼례)로 판공을 다녔었다. 그후 2대-김마오로, 3대-문마리아, 4대-박봉기(스테파노) 회장이 공소를 이끌어 오던 중, 정제석 신부님이 현재의 성당 터를(구-면청사) 잡아 금마공소가 시작되었다.

5대-배영길 회장에 이르러, 역대 신부님들이 집진적으로 다져놓은 본당 승격을 위한 준비를 정비하여 총력을 쏟던 중, 4월 23일에 초대 주임신부(김반석)를 모시는 영광을 맞았다. 교통편이 좋은데다 문화재 발굴과 더불어 호남지역 관광 명소로 변모될 이곳은 본당으로 병합될 공소 교우가 합쳐 1,000여명이 넘는 교세와 높은 봉헌 정신으로 자립 본당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본당 승격을 위해 수고하신 박창신 신부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금마본당이 옛날 문화 번창때 처럼 그 지역의 선교 요람지가 되기를 빌어 드리자.

휘콜라레 운동과 젠

—하루 마리아 빨리 대회를 앞두고—

우리 교구 4지구 주최로 「하루 마리아 빨리 대회」가 4월 26일 해성중고 교정에서 열리게 되었다. 먼저 대회의 성공을 위해 기도드리며, 휘콜라레 운동과 젠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휘콜라레 운동은 1943년 북이태리의 트렌토시에서 시작되었다. 세계 2차대전중 모든 것이 파괴되는 가운데에서, 끼아라 루빈은 몇몇 처녀들과 더불어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만이 가치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이들은 복음이 생활 한가운데 오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새 계명 「사랑」은 이 운동의 중심을 이루고 예수님의 유언 「일치」는 이들 생애의 이상(理想)이 되었다.

「휘콜라레」말은 “불”,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란 뜻이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형제들과 일치를 이루어 한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르킨다.

휘콜라레 운동이 어른을 위한 운동이라면 젠은 청소년들을 위한 운동이다. 젠(GEN-New Generation)이란 새 세대를 뜻하는 말로써 휘콜라레 운동의 새싹이다. 젠은 휘콜라레 단체의 한 부분이지만 거의 휘콜라레 운동과 같다.

그리고 해마다 이 운동의 성결과 이 운동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리는 모임을 마리아 빨리(마리아의 도시)라 한다.

현재 우리교구 본당 학생들을 위해 셀과 L.M.회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각 본당의 학생사목을 위해 셀과 L.M. 회합과 더불어 제모임을 시작한다면 큰 발전을 갖게 오리라 확신한다.

이번 「하루 마리아 빨리」 대회에 각 본당 학생들의 적극 참여를 권장하며 본당 신부님과 사도임원 여러분의 협조를 호소하는 바이다.

중·고 연합회 지도신부 임 기 불

※ 사제생활채신 집중세미나(4월 27일~5월 16일)

□ 평신도 유의사항

- ① 연수회 동안 본당에는 미사없음—봉헌자는 미리 신청 바랍니다
- ② 5월 3일과 10일 두 주일은 「말씀의 전례」로 대신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
- ③ 혼인 예정자는 미리 본당신부님과 상의, 병자성사 및 급한 용무는 교구청에 연락
- ④ 세미나 기간중 면회금지 : 본당대표에 한하여 휴식시간(1시30분~3시)에만 허용
- 협조사항 : ① 본 세미나의 성공과 사제단을 위해 영적·물적예물의 후원을 바랍니다
- ②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매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모임에서도)

요심이 (402) 김병오



직원 모집 공고

1. 인원 : 일반(사무) 남자○명
 2. 응모자격 : ① 만 18세 이상 40세미만의 남자로써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② 고등학교이상 학력소지자
 3.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 1통 ② 명함판사진 2매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④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1통 ⑤ 병적증명서 1통 ⑥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1통
 4. 제출기간 : 1981. 4. 20~1981. 4. 25(17시까지)
 5. 서류접수처 : 당조합 총무과 (전화 ⑦ 7188번)
 6.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 일시—81. 4. 28(오전10시) 장소—본 조합 사무실
 7.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 절 빈

부활절 제대 장식용
각종 생화 및 소재 다량구비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떡배) · 이 마리아

□이전 안내

금 · 은 · 보석 · 시계
금 보 장
(전 ·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옆(대치여관 입구)
전화 ④4989(사구팔구) ④4988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Weekend 버킹엄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 아동복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 4 5 1
유 율 리 안 나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식사항

1. 분당 회장·수녀·전례위원 특별교육: 4월 21일 오후 2시~5시, 가톨릭센터
2. 하루 마리아 빨리: 4월 26일 오전 9시 45분 해성 중·고등학교
3. 제 4 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4월 월례회: 22일 오후 6시30분 장소-북자성당, 주제-시범교리
4. 2차 로사리오 모임(내무공무원 신자): 4월 26일 10시 가톨릭센터
5. 대학생 연합회: ① 합장단 발족-연습<월> 오후 5시 30분(5월 4일부터) 입단비-2,000원
② 전주지구 목요 성서연구-<목> 오후 5시 30분 지도-김보나 수녀

(중앙)

전화 ③651번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환
보좌 신부 박인환
사도 회장 김병구

1. 성모회: 공식미사 후, 강당
 2. 사제생활 해신 집중교육(피정): 4월 27~5월 16일까지, 이 기간중의 미사는 미리 사무실에 접수하시고 5월중 혼인관련은 4월 27일 안으로 연어야 합니다
 3. 하루 마리아 빨리: 회비-성인 1,000원, 학생 500원 접수-4월 19일까지
 4. 사마리아인회 성지순례, 4월 22일 오전 6시 출발 중앙성당(집합), 장소-베네통성지, 신청-20일까지, 회비5,000원
 5. 사마리아인회에서 활동위령미사 (24일 어머니미사) 양생수 모친 마리아(미도), 이베드루 부친 이방지거, 진복동 신바로(광술), 태평동 이완규(아오스당), 신팔성 모친 박마리아(옥주), 동성의원 강바로 모친
 6. 사제양성을 위한 돼지통은 5월 10일(성소주일)에 봉헌합니다
 7. 견진자 신입: 6월 7일 성신강림 대축일을 기하여 견진성사를 받으실 분은 5월 24일까지 사무실에 신청요 교리시간-5월 27·28·29일, 6월 3·4·5일, 오전반 10시 30분, 오후반 7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545,081원
검사현금 이봉구(요섭): 10,000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중열
사도 회장 박준근

1. 축!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2. 은혜의 밤: 24일<금> 오후 7시30분부터 성령세미나를 받으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베소라 성서강의: 21일<화> 오후 7시 30분부터
 4.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 성서강의: 20일 오후 2시
 5.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 로마서 전체
 6. 성가집회 모임: 매주<수> 저녁미사 후
 7. 분당에 협조해 주신 분들: 박인식씨(화단 조성기금) 10만원 회사, 김보일씨(숙직실)에 T.V 1대 기증, 박세옥씨(부활 꽃값) 5만원
 8. 교무금 납부의 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80년도의 교무금 미납자명단 26일부터 공개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283,4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 ☆ 축 영세 20명,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 구세주의 모친 Pr 탄생
 2. 사도회 모임: 오늘 미사후
 3. 첫 영성체: 오늘 3시미사 중
 4. 속해있는 미사에 꼭 참석하세요
학생 오전9시, 공식 10시30분, 어린이 3시, 청년8시
 5. 학생미사: 금주와 차주에 없읍니다
 6. 특별강론: 5월 3일-한상열(바오로) 형제
5월 10일 양상열(암브로시오) 형제
 7. 부활절 행사에 협조 감사합니다
부활초-박정림, 제대꽃-최덕혜·문데레사
회분-이영자·김정애
- 지난주 봉헌금: 464,490원

(복자)

전화 ⑤25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마리아 빨리: 26일 오전 9시40~오후 4시30분 학생 500원, 어른 1,000원

3. 교구 사제 피정: 27일~5월 16일, 위 기간중 미사 봉헌하실 분은 26일까지 접수 바람
 4. 판공성사 안포신 분들은 미사후 보세요
 5. 봉헌금 미수 완납 바람
- ☆ 축! 혼인미사: 4월 25일<토> 오후 2시 신랑-강준희(엘리오테리오), 신부-장혜옥
- 지난주 봉헌금: 372,891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철수

1. 주님 부활의 기쁨이 가정에 충만하시길...
 2. "축" 영세자 28명: 축하합니다
 3. 할머니회: 공식미사 후(다과회 있음)
 4. 마리아 빨리: 공식미사 후(다과회 있음)
 5. 돼지저금통: 5월 10일까지 연기, 많은 협조 바람
 6. 사도회 임원 모임: 22일<수> 저녁 8시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김낙환 ② 김낙균, 신자들의 기도-김수진
- 지난주 봉헌금: 216,300원 교무금: 250,000원

(술정리)

전화 ②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마리아 빨리: 해성학교 강당, 26일 오전 9시~4시
 3. 사제양성 후원성금(돼지통): 5월 10일 성소주일까지
 4. 축! 영세자 환영: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 차주 전례담당: 해설-정주복
독서-정환철·김창영, 기도-홍성조
- 지난주 봉헌금: 289,010원

(전동)

전화 ②3222번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 1: 축! 부활
① 주일학교 행사: 성가경연대회-오후 1시 30분
② 중고생행사: 교리경시-오전 9시 30분, 달걀판배
- 2: 꼬미씨름: 오후 1시
3. 구역회합(미사) 일정
중앙동 4월21일, 오후 7시(김미희씨 맥) ③ 3190
남노송동 2구-4월22일 오후2시(이분이씨 맥) ②2184
동완산동 1구-4월22일 오후8시(김주래씨 맥) ②0314
풍납동 4구-4월23일 오후 2시(김은순씨 맥) ②4784
경원동-4월24일 오후 2시(차금순씨 맥) ②4421
다가동-4월24일 오후 8시(정옥님씨 맥) ②9886
4. 수녀원 및 소강당 산속기금 수입에 많은 협조 바람
5.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 해설-이주영, 독서-① 최병태 ② 박종구
공식: 해설-김윤주, 독서-① 백종훈 ② 이영희
저녁: 해설-경양수, 독서-① 이승호 ② 변해식
6. 성화회: 공식미사 후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수녀원 준공식: 오늘 공식미사 후 김환철 교구장 직무대행님을 모시고...
 2. 유아세례: 다음주 오후 3시
 3. 모든 중·고생은 빠짐없이 마리아 빨리에 참석을 바랍니다
 4. 수녀원 신축신입금을 속히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수녀원 신축 신입자
김동선(5만원), 송윤자(2만원), 유병환(1만원), 김환철 신부님(1만5천원), 정귀남(10만원)
- 지난주 봉헌금: 136,735원 교무금: 260,500원